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

Tag: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3:1-8)

니고데모 이야기는 유명하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1.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듯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가 만나면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영이 성령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고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한다. (가 거듭난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몸으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임)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님.

-다만 영적인 존재이긴 하나 성령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지는 못하고 있음.

-그러나 악령의 노략물이 되어 그에게 속고, 심지어 악령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악한 습관에 빠지기도 한다.

-사람에게 있는 동물적 성향을 유혹해서 악한길로 빠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오직 성령께서 임의대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

일단 기초는 이것이다.

부모로부터 몸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부터 영으로 태어난다.

애초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임하여 계시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6:3)

-성령은 원래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

-왜? 사람이 육신이 되기 때문. 짐승처럼 되기 때문.

-그들 스스로를 자신의 자의로 동물처럼 되어감.

- 에텐동산은 파괴되고 모두 타락했고, 임의대로 죄를 지음.
-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으나, 이제 그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심.
- 사람은 그 결과 기껏해야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게 됨.
- 그나마 몇십년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겨우 100여년을 채우더라도 질병으로 고생하며 죽음. 저주에 해당함.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36:26)

- 굳은 마음;마귀에게 속아서 영적 DNA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온전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오히려 암적인 기현상만 일어남.)
- 부드러운 마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DNA 활동이 활성화 되어 본래의 영적인 기능(특히 생명현상)이 되살아나는 것을 뜻함.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 8절 말씀에서 바람은(루아흐/프뉴마;바람, 성령) 성령님을 뜻함.
- 성령님은 자유의 영, 성령님의 임의성을 강조하는 말씀.
  -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바람의 향방을 추적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람의 임의성을 설명하는 말씀.
  -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함;성령으로 난 사람의 임의성.
  - 성령님은 자유의 영,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영.
  - 진리의 성령,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7)

-특히 ‘소리는 들어도’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귀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임의적 판단과 태도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다. 솔직하고 존중하며 경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동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성령님의 임의적 나타나심과 나의 자발적인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 (서원과도 연관됨)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가능성에 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고,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기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26절

Tag: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5:16-26)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이미 우리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 마귀가 그 거짓말의

주파수에 맞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지 않는가?

- 거짓(사실+마귀적 해석)과 진리(진실+성령의 해석)의 구별 훈련.
-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챙겨. 진짜 그래!!!
- 나는 그래도 엄마를 더 잘 챙겨서 선으로 갚아 줄거야.
- 왜지 나는 그래서 엄마에게 잘 해주고 싶지 않아.
- 많은 소녀들이 사이먼과 가펩클의 목소리에 넘어가 엄마의 목소리를 떠났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율법적이고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나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엄마가 자신의 젊었을 때의 실수를 딸이 반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싶어서였음)
- 사연이 많은 엄마의 목소리 보다는 배려심이 많은 엄마의 목소리가 중요함. 두려워 하지 말고.

불변의 진리;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한다.

어떤 엄마는 자신의 사정 때문에 자식을 미워한다.

-그 사정이라는 것이 거짓말.(사실+마귀적 해석)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육체의 소욕, 욕심; 우선 욕심-억압된 욕구?, 잘못 켜진 스위치?
- 잘못 켜진 스위치여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인데 일상이 채울 수 없어서 자연히 억압된 욕구?
- 성적욕구와 탐구심과 운동욕구; 단순한 스위치일 뿐 따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쾌감중추의 자극으로 연결됨.
- 반복되는 행동패턴, 학습으로 이어짐.
- 문제는 이 학습이 유익한가 해로운가 임.

-부모는 아이의 쾌감중추가 유익한 학습으로 자극되도록 돕는 자. 칭찬, 환경 조성, 술선 수범.

-무엇에 먼저 노출되느냐가 중요함.

-어떤 나쁜 행동은 들키지 않음에 대한 안심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은밀한 행동에 중독되기도 함. (심장은 강해지려나?)

-음식을 통한 쾌감 중추 자극.

-운동을 통한 쾌감 중추 자극.

-음악을 통한 쾌감 중추 자극.

-말씀을 통한 쾌감 중추 자극.

-게임을 통한 쾌감 중추 자극. 아이를 키우기 보다 아이 키우는 게임에 중독됨. 진짜 아이가 죽음.

-대부분의 본능은 학습된 것임.

-육체의 소육이란, 나쁜 습관으로 쾌감중추가 자극된 경험을 뜻함.